

# 청소년의 친구관계

서 동 인\*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결 론

## I. 서 론

인간에게 친구관계는 전 인생주기에 걸쳐 중요한 사회적 관계이다. 특히 학동기와 청년기 동안 친구관계의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기간 이전에는 부모가 의미있는 타인으로써 큰 영향을 미치고 갱년기 이후에는 이성과의 애정관계가 일차적인 관심사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아동기에 접어들면서 아동들의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는데 이 중 친구관계나 또래집단과의 관계가 아동의 발달적인 측면에 미치는 중요성은 매우 커지게 된다. 특히 청년기로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사회적·인지적 측면에서 급격하고 동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청소년들은 친구들로부터 지원과 이해 및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된다(Douvan and Adelson, 1966). 친구들은 공통적인 관심과 문제, 고민을 함께 나누는 관계로써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을 주고, 가족을 벗어난 가치의 원천이 되며, 성인의 압력이나 간섭에 대항하는 힘을 주는 준거집단이 된다. 특히 성인과의 관계가 위계적인 성격을 띠는 반면 친구관계는 평등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능력을 학습하게 된다는 면에서 청소년의 친구관계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하겠다.

H. S. Sullivan은 청년 전기의 단짝 친구의 필요성과 기능을 강조하면서, 이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이로 부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1953). 자아의 발전과 자아형성을 타인과의 상호작용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에서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이라는 발달과업과 관련하여 이 시기의 친구관계의 중요성을 지적

\*성심여대 가정관리학과 강사

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친구집단과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자신을 인식하고 사회구조를 알게 되고, 집단에서 수용되고 거부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도하고 그에 따르는 것, 정의와 불의, 충성과 영웅과 이상들을 학습하게 된다 (Stone and Church, 1968 p.364를 Fine, 1984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청년기의 친구관계의 기능적인 중요성을 고려할 때, 친밀한 친구관계가 없고 또한 친구관계 형성에 곤란을 느끼거나 친구집단에 수용되지 않는 청소년은 중요한 지지적 원천 및 사회적 능력을 학습할 장을 잃는 것이며, 그 결과 정서적 불안정, 부정적인 성격 형성 그리고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Hardwick, Pounds & Borwn,1985).

한편, 친구관계에 대하여 발달적인 접근을 한 Mass(1968)의 연구와 Berkeley Guidance 연구에 의하면 아동기와 청년기의 또래관계의 질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대인간의 기능과 관련되었다. 아동기의 또래관계는 청년기의 또래관계와 높은 상관 관계가 있고, 청년기의 또래관계는 중년의 결혼만족도와 사회성 및 정신건강과 아주 높은 정적 상관을 갖는다. 이러한 사실은 친구관계가 시작되는 시기부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의 원만한 친구관계형성은 아주 중요한 발달과업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관심 및 교육과 지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 글에서 청년기의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발달상에 미치는 기능적인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친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청년기 단계에 따른 친구관계의 양상이 어떠한가, 친구관계의 형성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는 청소년의 친구관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는 또한 청소년들의 원만한 친구관계 형성에 대한 지도와 교육에 지침이 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친구란?

청년기의 친구관계에는 또래집단 및 우정관계와 이성친구관계 등이 포함된다. 이 글에서는 또래집단과의 관계 및 우정관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또래집단과 우정관계는 청년기 발달에 미치는 기능적인 측면과 상호작용적인 면에서 유사성이 크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라는 용어는 또래집단 및 일 대 일의 우정관계를 전부 포괄하는 용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다음에서 정의상 또래집단과 우정관계를 구분하지만, 이 글에서 친구관계라는 용어로 이 두 관계를 함께 지칭하기도 한다는 점을 미리 언급하고자 한다.

또래집단은 친근하고 동등한 지위를 가진 성원으로 구성되어 행동상의 복잡성의 수준이 비슷한 상호작용을 하는 집단(Hartup, 1983)이다. 반면, 우정관계는 두 사람의 관계로 어머니와 자녀사이의 애착과 비슷한 애착관계를 갖는 사회적 관계로(Hartup, 1983), 또는 애정과 호감에 근거한 동반감 *companionship*과 상호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사회적 관계(Damon, 1985)라고 정의된다.

우정관계에 대한 정의를 고려하는데 친구에 대한 기대를 파악하는 연구결과들(Berndt, 1981; Bigelow & LaGaipa, 1975; Bigelow, 1977; Claes;

1922; Youniss, 1980)이 참고가 된다. 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유아기에서 청년기 후기까지 친구를 정의하는 기준이 크게 변화하여, 연령이 어릴때는 놀이나 활동에 대한 공통 관심을,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정과 느낌의 공유 및 자기 노출을 친구에 대한 기대로 언급하였다.

Youniss(1980)는 우정관계에 대한 개념이 연령에 따라 발달하는 것으로, 즉 (1) 긍정적 상호작용의 단계 : 협동적인 활동과 상호성(6-7세) (2) 인성과 유사성 및 평등성의 발견 단계(청년 초기) (3) 자기 노출 공유 및 개성에 대한 이해(청년기)의 세 단계를 주장하였다. 유치원생에서 국교 6학년생까지 대상으로 한 Berndt(1981)의 연구에서 모든 연령의 대상들은 놀이와 함께 만나 시간을 같이 하는 것, 서로 친사회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 수록 친밀도, 신뢰, 충성의 지원을 우정관계의 기준에 첨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rtup, 1983에서 재인용). 12-18세까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Claes(1992)의 연구에서는 청년기 단계에 따른 차이가 없이 신뢰, 솔직함, 충성을 우정관계에 대한 기대로 보고하였다.

우리의 문화권에서 친구라는 용어는 다양한

상황에 적용된다. 친한 친구, 좋은 친구, 아주 친하지는 않은 친구, 일시적 친구, 친구가 되기를 희망하는 아는 사람, 상호교류의 깊이가 얇고 일반적인 집단인 또래집단 등에 친구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우리 청소년들의 친구관계에 대한 기대와 규범을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문화권에서 청소년들이 친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조사하여 이 결과로부터 보편적인 정의를 내리는 귀납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거의 없고 또한 주로 학동기에 관한 내용에 치우쳐 있어 청소년들의 친구에 대한 일반화된 정의는 내릴 수 없는 실정이다.

## 2. 청년기의 친구관계와 사회·심리발달

청년기의 친구관계는 그 구조와 규범을 불문하고 청소년들의 사회·심리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증적 연구 결과들을 근거하여 제시된 청소년의 친구관계의 기능은 거의 공통적인 내용이다(표 1 참조). 이 글에서는 Sullivan의 대인간 이론과 자아 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친구의 영향을 설명하는 하나의 관점인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친구관계의 기능적인 중요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표 1>

친구관계의 기능

<p>Hamacheck(1980) : 또래집단의 기능 (Lloyd, 1985에서 재인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지원을 대신함</li> <li>-안정시켜 주는 기능</li> <li>-사회적 지위 부여</li> <li>-자존감의 원천</li> <li>-행동기준의 원천</li> <li>-안전감의 원천</li> <li>-역할담당과 피이드백의 기회제공</li> <li>-모델 제공</li> </ul>	<p>Brown,Eicher &amp; Petrie(1986) : 청소년의 시각에 근거한 또래집단의 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아개념의 원천</li> <li>평판, 지위 부여</li> <li>동조 대 개별화 과정의 기회</li> <li>지지의 기능</li> <li>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li> <li>활동의 원천</li> </ul>	<p>Ginsberg, Gottman, Parker(1986) : 친한 친구관계의 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밀한 상대와 시간과 활동의 공유</li> <li>정보, 기쁨과 흥분을 주는 자극의 기능</li> <li>시간, 자원과 도움의 제공</li> <li>자아증진의 기능</li> <li>개인의 관점과 속성의 비교 기준 제공</li> <li>친밀함과 애정의 제공</li> </ul>
---	---	---

## 1) Sullivan의 이론

대인간의 관계안에서 인성발달을 설명하고자 한 Sullivan의 이론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가정, 즉 인간은 어떤 특정한 대인간의 상황을 원하는 반면 어떤 유형의 대인간의 상황은 피하고자 한다는 가정을 갖는다. 인간에게는 다섯 가지의 사회적 욕구 즉 부드러움, 기분 좋은 활동에 함께 협동하는 것, 타인으로부터 수용되는 것, 대인간의 친밀감, 성적 접촉에 대한 욕구가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 기저에는 이에 대등한 부정적인 정서인 두려움, 외로움, 배척, 싫증, 불안감과 같은 긴장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긴장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특정한 대인간의 상황을 만들어 윤택하지 않은 긴장으로 부터 벗어날 뿐 아니라 안전감, 사랑, 자존감이라는 긍정적 보상을 제공받게 한다.

Sullivan은 발달단계에 따라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가 새롭게 덧붙여 지게 된다고 한다. 유아기에는 부드러움에 대한 욕구를 갖는데 이는 보호적인 보살핌이 이시기에 필요함을 의미하며, 아동기에는 성인과 함께 상호적인 관심과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는데 이 시기의 주요 대상자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아동은 비대칭적인 교환을 배우게 된다. 학동기에서는 다른 아이들과의 동반감에 대한 요구가 첨가되는데 또래 관계에서 평등한 교환 관계, 협동, 타협, 경쟁을 배우게 된다. 이 시기에는 또래와 자신의 차이를 알게 되고 또래들에게 수용되고자 하는 욕구를 갖으며,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배척의 공포가 커진다. 청년 이전기에는 단짝친구 *chum*와의 관계에서 친밀함을 추구하는 욕구가 등장한다. 이때의 동성

과의 단짝 친구관계는 이전의 아동기에 가졌던 또래집단과의 우정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단 두 사람 사이의 동성관계이며 서로간에 심리적 으로 관여하는 정도가 깊고 서로 털어 놓지 못할 비밀이 하나도 없는 그리고 서로간에 거부 당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도 가질 필요가 없는 매우 깊은 관계이다. 이러한 단짝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Erikson의 심리사회 발달단계이론에서 보면 자아정체감을 형성, 유지하고, 역할혼미와 정체감의 와해를 방지하는 길이 된다. 이 시기에 단짝 친구를 통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여 자아존중감이 형성되지 못하면 사회적 거부와 배척의 감정 혹은 고립감을 가지게 된다. 청년기 초기에는 신체적·생리적 발달에 따라 성적 관심과 욕구가 등장한다. 이성의 친구가 대인간의 친밀감과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관계를 형성하기에는 여러 갈등과 어려움이 따른다. 동성의 단짝 친구 관계와 또래 집단과의 관계도 계속하여 필요하다. 청년기 후기는 친밀감의 욕구가 충족되는 단계이다.

이상의 Sullivan의 이론에 의하면 청년기의 친구관계는 이 단계의 청소년들의 친밀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사회적 역량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사회 적응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Buhrmester and Furman, 1986).

## 2)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C. H. Cooley, G. H. Mead, H. Blumer, E Goffman등에 의해 발전된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은 청소년의 친구관계의 기능을 설명하는 측면에서 그 유용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의 중요한 세가지 전제

는(Blumer, 1969)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은 사물에 대하여 행동할 때 그 사물이 그들에게 주는 의미를 근거로 한다. 행동이나 대상은 선택적인 자극 가치 *a priori stimulus value*를 갖지 않는다고 말해진다. 둘째, 이러한 자극들의 의미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생한다. 셋째, 이 의미들은 고정적이지 않고 반복되는 과정들을 통하여 수정될 수 있다. 즉 의미들은 대인간의 타협에 달려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통하여 상징적 상호작용 관점은 변화와 발달에 지향한다. 또 다른 가정은, 사회적 의미들은 의사소통을 통하여 형성되고 따라서 행동의 원인들은 일차적으로 생물학적이고 무의식적이지 않고 사회적·의식적이다.

아동기에서 발생하여 청년기까지 이루어지는 발달과정에 대한 상징적상호작용론의 중요한 논제는 다음과 같다. 타인에 대한 인식을 통한 자아발달,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상징의 사용, 타인의 기대의 함수로써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의 발달이다. 타인은 개인들이 자신을 배울 수 있는 거울이고, 자아가 행동의 방향을 타협하는 것도 타인과 함께이다. Cooley는 아동의 자아에 대한 인식은 상호작용의 산물이고, 아동은 어휘를 획득하여 자아 반영적임 *self-reflective*을 학습하기 이전에 타인을 알게 된다고 한다. 이처럼 자아개념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달되고 아동이 타인의 역할을 취할 능력에서부터 발생한다. 이 역할 담당 *role taking*은 Piaget도 구체적 조작기 발달의 중요 특성으로 보았다. 그러나 인지이론의 접근과는 상반되게 상징적 상호작용 관점은 아동이 자아에 대한 개념을 발달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개념을 획득한 후라고 한다. 아동의 자아의 형성은 학교가 시작됨에 따라 확장되며

여기에서 아동은 다양한 타인들을 다루는 것을 학습한다. 다양한 사회적 세계는 다양한 행동상의 선택에 노출됨으로써 아동의 자아를 형성한다.

두번째 논제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적절히 행동하는 노력을 획득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나이 어린 아동은 점차로 또래와 가까운 친구들과 상호작용할 능력을 획득하고 자신들의 견해를 강제로 시행하는 성인이 없는 환경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아동은 일치되는 사회적 의미들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신의 기술을 세련시켜야 한다. 게다가 아동은 타인의 반응을 통하여 그들의 행동들이 결과를 갖는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또래 집단안에서는 성인과의 관계에서와는 다르게 어느 한쪽의 정의만이 합법적이라는 가정을 공유하지 않는다. 일단 아동이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상황들에서는 서로 다른 행동들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일관된 행동 패턴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게 된다. 상징적 상호작용은 스스로를 능동적인 주체로서 자신을 볼 수 있는 아동의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Mead는 개인은 스스로를 타인들과의 관계안에 위치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형성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청년기가 끝나게 될 때까지 주요한 상호작용적 과업은 개인의 사회 정체감을 세련하고 이 다양한 사회적 세계안에서의 자신의 성공스러운 위치에 필요한 기술들을 획득하는 것이다.

자아정체감 형성은 일생 동안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특히 청년기는 급격한 신체적·인지적 변화로 자아 정체감 형성이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상징적 상호작용 관점은 자아 인식과 자아 정체감 형성과정에서 스스로를 비취어 주고 또

한 피이드백 해주는 친구의 기능적 중요성을 부각시켜 준 이론이라 하겠다.

### 3. 청년기 단계와 친구관계

또래집단의 상호작용은 청년기 초기에 증가하여 청년기 중기에 절정에 이르다가 청년기 후기에 진입하면서 감소한다. 또래집단에 관여 및 지향과 또래집단에의 동조도 청년기 중기에 가장 높으며, 또래에게 거부당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도 이 때에 절정에 이른다(Coleman, 1974, 1980; Douvan & Adelson, 1966). 친구와 같은 스타일의 옷, 머리 모양, 언어행동, 음악 등에 집착하는 정도도 청년기 중기에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는 부모로부터 독립되는 과정에서 자율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의 근거가 되는 지지적 관계를 또래 집단이 제공하기 때문이다(Newman & Newman, 1976). 청년기 후기로 진입하면서 개인적 정체감이 강화되면서 또래 집단의 필요성은 감소되고, 동조에 대한 또래 집단의 압력을 부정적으로 여기게 됨에 따라(Brown, Eicher & Petrie, 1980) 또래집단에 의 동조 정도는 감소되기 시작한다.

청년기의 또래집단은 짝패 *cliques*와 대집단 *crowd*의 두가지로 나타난다. 짝패는 2-9명 정도로 구성된 집단인데 자기들 끼리만 모여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D.C. Dunphy(1963)의 연구에 의하면 짝패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응집력이 매우 높았고, 연령, 학년, 사회경제적 지위등이 비슷하며, 가치관, 흥미, 도덕적 기준 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대집단 *crowd*는 15-20명으로 구성되었고, 대화와 같은 친밀하고 개인적인 활동은 못하고 사교 활동만 한다. 대집단은 짝패간의 상호교환 활동

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Dunphy는 청소년들의 또래관계의 과정과 구조가 청년기의 단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청년기 초기에는 분리된 동성 짝패가, 중기에는 여러 남·여 짝패가 융해되는 대집단으로 변화하고, 청년 후기에는 비교적 독립적인 이성으로 구성된 짝패로 분해된다.

이와 같은 청년기 또래집단의 구조의 변화는 연령에 따른 청소년의 욕구와 관심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청소년의 친밀한 관계의 능력은 동성의 친구관계를 통해서 학습되고 후기에는 이성관계에서 친밀함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어 지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성교제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친구들과 함께 편안한 마음에서 이성에 대한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더 이상 친구들의 지지가 필요치 않게 됨에 따라 집단이 붕괴되는 것이다. Dunphy는 이와 같이 이성에 대한 사회화 기능에 초점을 두어 청년기 단계에 따른 친구관계 형태의 변화를 설명하나, 또래집단은 청소년의 생활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이다.

### 4. 친구관계의 형성 과정

친구관계의 형성과정을 설명하는데 대인간 매력에 대한 이론이 적용되고 있다. 친구관계는 좋아한다는 것 이상의 여러 구성 요인과 관련이 있으나, 좋아한다는 것은 접촉의 빈도와 같은 관계의 중요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일 것이다. 친구관계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강화이론, 교환이론, G. Levinger의 발달적인 접근, 그리고 사회적 삼투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강화이론

강화이론 *reinforcement theory*은 인간은 자기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기본가정을 갖는다. 고전적 조건화의 원칙에 근거한 Lott and Lott(1974)의 논지는 개인에 대한 호감도 그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보상을 경험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보상과 그 상황에 존재하는 개인이 연합이 되어 그 개인에 대하여 우리가 호감을 받게 된다고 설명한다. 보상의 빈도, 보상의 지연, 대리강화, 욕구, 혹은 자극 가치등이 타인에 대한 호감의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 한 개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상을 자주 받을수록, 우리의 행동이 즉각적으로 강화받을수록, 그 보상이 가치있다고 여길수록, 그 개인에 대한 호감의 정도는 증가한다.

### 2) 교환이론

Homans(1961), Blau(1964)와 Adams(1965) 등에 의하여 발전된 교환이론 *exchange theory*은 다음과 같은, 즉 한 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의 비용이 그 관계의 보상을 넘어설 수 없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교환은 친구관계의 한 요인이다. 교환이 없이는 친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친구관계에서 교환은 수단적인 교환과 정서적 교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단적인 교환은 물질적 자원의 교환이 포함되고, 정서적 교환은 서로 지지해주고 문제와 생각을 나누고 시간을 함께 하는 것 등이 속한다. 교환에 관여하는 사람에 따라 교환되어지는 내용은 달라질 것이고 또한 발달 단계에 따라서도 교환되어지는 자원의 종류와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교환이론에서 진전된 평형이론 *equity theory*은 한 관계에서 교환의 공평성을 지적한다. 불공평에 직면한 개인은 긴장 상태에 이르게 되고 이 상황은 그 불공평을 없애고자 하게 만든다는 것이 기본 가정이다. 한 관계에 대하여 신중히 생각하여 그 관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그 관계로 부터 비교적 똑같은 이득을 얻었다고 결론지은다면 공평한 관계이다. 개인들은 자신과 상대자가 그 관계에 투입한 것과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관계의 공평성을 측정할 수 있다. 자신과 상대자가 얻는 것이 같지 않는 불공평한 관계라는 것을 발견할 때 좌절하게 된다. 과다하게 이윤을 얻는 경우에는 죄의식이나 부끄러움이 생기고, 이윤이 적다고 여기는 경우는 착취당했다는 감정에서 좌절이 따른다. 불공평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신이나 상대자의 이윤을 조정하거나, 그 관계가 실제로는 공평하다고 자신의 인식을 수정하여 심리적인 공평성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공평성을 얻기 위하여 기술을 고려하고 사용하는 것은 비용이 된다. 교환이론에서 처럼 이 비용이 크면 클수록 그 선택은 인기가 없어지게 된다. 연령, 인지, 지각, 인성특성 및 친구관계의 기간과 유형등에 따라 관계의 공평성에 부가하는 중요성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친구관계에서 공평성 혹은 교환의 균형은 공통적인 요인이 된다(Roberto, 1989).

### 3) Levinger의 발달적 이론

Levinger와 Snoek(1972)은 대인관계가 친구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피상적 관계에서 상호성의 깊은 관계로 발달하는 세 단계 이론을 주장하였다. (1) 일방적이며 피상적인 대인관계 (2) 두 사람간에 표면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관

계 (3) 독자적 인간으로서 서로 함께 지낸 과거의 경험과 앞으로 당면할 미래에 대한 예견까지 모두 형성되는 상호관계를 말한다. 물론 모든 대인관계가 이러한 과정을 전부 걸쳐 가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라져 가기도 하는데, 각 단계에서 그 관계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 때 다음단계로 나아간다. 새로운 Levinger의 모델은 관계의 형성과 진전 뿐 아니라 퇴화와 종결에 이르는 변화 단계를 포함한다. (1) 두 사람이 서로 만나 사귀는 단계 (2) 두 사람 관계의 형성 (3) 두 사람간에 오랜 시간에 걸친 상호개입으로 지속성이 성립되어 대인관계가 지속되고 응고되는 단계 (4) 상호관련성이 퇴화하는 단계 (5) 종결되는 단계이다. 관계의 퇴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즉 다양성, 빈도, 상호작용 기간, 애정의 유형과 강도, 의사소통의 개방성, 신뢰, 상호성 등에서 부정적인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한다. 두 사람의 과정, 개인적 특성 및 외적 요인들도 여기에 효과를 미친다. 퇴화된 관계는 이 상태로 무한하게 계속될 수도 있고 종결로 이끌어 질 수도 있다. 친밀한 관계를 끝낼 의사결정은 대안적 관계가 줄 수 있는 이득에 달려있다.

#### 4) 사회적 삼투이론

Altman과 Taylor(1973)의 사회적 삼투이론 *Social Penetration Theory*은 다음과 같은, 즉 대인관계는 Levinger의 발달적 접근에서 제시한 것과 유사한 발달과정을 쫓는다고 가정한다. 대인간의 상호작용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폭(단위 시간당 상호작용의 양)과 깊이(상호작용의 친밀도 수준)가 변화한다. 처음에는 아주 피상적인 수준에서 인간관계를 맺어 나중에는 아

주 친밀한 관계로 진행하게 되는데 보상과 비용의 균형이라는 요인이 이에 영향을 미친다. 시간에 걸쳐 변화하는 두 사람간의 관여는 보상이 비용을 능가하면 친밀한 단계로 나아갈 것이고, 보상과 비용의 균형이 부정적이라면 삼투과정이 멈출것이다.

이상에서 친구관계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네가지 이론을 살펴 보았다. 강화이론과 교환이론의 관점은 친구관계의 형성, 유지의 종결의 각 단계에 적용될 수 있는 반면에 Levinger의 발달적 이론과 사회적 삼투이론은 하나의 관계가 시작되어 시간에 걸쳐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각 이론들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논술하고 있지만 이 이론들 모두 일반적으로 호감은 강화·보상에 근거한다는 가정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 친구관계 형성 및 유지에는 상호적인 강화·보상이 중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 5. 친구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성별

전통적인 성역할 기대는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독립심과 능력을 기대하는 남아보다는 의존적이고 상냥하고 사교적으로 사회화되는 여아에서 친구관계의 친밀도와 애착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는 남아보다 친구관계의 질적 측면에 가치를 두고 친구에게 더욱 기대하고, 친한 친구와 아주 애착된 상태를 보이고, 좋은 친구와 높은 친밀도를 경험한다. 여아는 의사소통, 신뢰, 감정이입, 자기노출과 공유면에서 남아보다 더욱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laes, 1992).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들

의 친구관계에 대한 기대에서 (Berndt, 1981; Bigelow and Lagaipa, 1980), 그리고 자신의 친구관계에 대한 묘사(백화정, 1989; Claes, 1992)에서도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는 여아와 비교하여 청년기 중기까지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보다 또래 집단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친밀한 관계의 발달이 다소 뒤로 늦추어 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Sullivan의 청년 전기는 여아에게는 단짝친구가 친밀함을 제공하는 단계일 수 있으나 남아에게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에는 이른 시기임을 추정할 수 있다.

성별과 관련된 논제로는 이성의 친구관계의 등장이다. 여아가 남아보다 사춘기가 빠르므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일찍 시작되고 흔히 연령이 위인 남아들과 교제하는 경향이다. 고희본(1982)의 연구에서 대상의 60% 이상이 고교 시절의 이성 교제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37.7%가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갤럽의 조사(1911)에 의하면 이성 친구를 사귀는데 있어 남학생의 경우 여자 친구에게 압전함(78.4%)을 크게 기대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모험심(54.3%)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조선일보, 1991. 5.20에서 인용).

## 2) 개인적 자질

개인적 자질은 성격 특성과 신체적 매력 및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격 특성은 온정성, 성실성, 이해심이 언급된다. 한정란(1989)은 중학생들이 자신의 친구 선택의 원인을 친구의 성격으로 가장 많이 귀인하고, 성격요인으로 유머어가 많다, 확하다, 친구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상냥하다를 들었다.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중학생들이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좋은 성격(87.4%), 압전함(28.9%) 등의 항

목은 친구를 사귀는데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리고 유머 감각은 학급에서 인기를 얻는 가장 중요한 자질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범석(1990)의 연구에서도 친구선택 요인은 인기아나 고립아간에 차이없이 성격과 유사성으로 나타났다.

## 3) 보수성

인간은 자기에게 생기는 이로움이나 유쾌한 일과 관련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 점은 앞에서 살펴본 친구관계 형성을 설명하는 각기 다른 관점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요인이다. 보상은 물질적·심리적 측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 4) 자기 노출

자기 노출이란 한 개인이 그렇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자신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자발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다. 확실하게 공유되거나 받아 들여지는 개인적 정보와 감정은 관계의 친밀감을 증진시킨다. 자기 노출은 상호적이고, 관계가 친밀하게 될 수록 상호간의 광범위한 자기 노출이 일어난다. 자기 노출은 친밀한 관계의 산물이기도 하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 5) 유사성

자신과 유사한 의견을 가진 사람을 선호한다는 것은 심리학에서 일관되게 지지 받는 가설이다. 인간은 대상에 대한 인지적·정서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경향 때문에 그리고 유사성은 개인에게 그의 사회적 정체성을 타당화시켜 주는 근거를 제공해 주므로 자신과 유사한 사람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한정란(1989)과 김범석(1990)의 연구에서 친구선택의 원인으로 유사성이 성격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귀인 요인이었다. 유사성 특히 흥미의 유사성을 중시하는 경향이고 유사성이 경시아보다 인기아에게 더 중요한 친구선택원인으로 선택되었다. 이와는 상반되게 욕구-상보성 가설 *need-complementarity hypothesis*에서는 상보성이 호감의 주요 요인이라고 제안하기도 하나 아직까지의 연구로는 상보성의 효과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6) 근접성

가까이 있는 사람은 친구로 삼을 기회가 더 많다는 가능성으로 인해 호감을 증가시키며, 또 근접성으로 인한 친숙성 자체가 호감을 증진시키기도 한다. 즉 접촉의 빈도가 많아야 좋아하게 된다.

## III. 결 론

이상에서 청년기의 친구관계가 청소년들의 발달과업에 미치는 기능적 측면을 살펴 봄으로써 친구관계의 중요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친구관계의 본질을 알아보기 위하여 친구관계의 정의, 형태 및 형성과정에 관한 이론 및 관련 요인들을 살펴 보았다. 친구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의 구조와 과정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 연구가 우선되어야 하나 국내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은 우리 청소년의 친구관계의 실태에 대한 정보를 거의 주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한국궐론 조사에서 중학생 중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비율이 3.2%로 나타났고, 고영본(1982)은 대상의 13.0%가 친구가 별로 없

고 75.5%가 친구때문에 괴로움을 당한 경험을 한 두번 이상 하였고, 35.4%가 친구는 공부에 지장을 준다고도 응답하였다. 몇편의 조사 결과이지만 이러한 발견은 청소년들, 부모 및 교사,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친구관계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친구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함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내용을 근거하여 청소년의 친구관계에 대한 지도 및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친구관계 유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교사와 부모는 그러한 기회를 조성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또래와의 관계 형성도 중요하지만 특히 친밀한 관계에 필요한 사회적 역량을 증진시켜 두 사람 관계의 우정관계를 형성케 하고 이 관계의 질을 증진시키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친구관계에 중요한 사회적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의사소통방법 및 사회적 기술을 비롯한 친밀한 자기노출, 친구 요구를 알아차리기, 정서적 지원들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청소년 초기는 자아중심적인 특성으로 다른 사람에 관심을 두지 않아 타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친구관계에 관한 여러 이론들과 관련 요인들이 이에 관한 자료가 될 것이다.

셋째, 친구관계가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한덕웅, 1985). 인간관계가 양면적인 속성을 가지듯이 친구관계 역시 갈등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 그리고 이를 해결하고 타협해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경쟁심, 시기, 질투와 같은 감정이 친구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황, 이를 다루는 방법, 또한 부정적 감정이 친

밀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들에게 현재 자신의 친구관계에서 이러한 능력을 습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친구가 없는 청소년에게는 반응적인 대상을 짜지워 주고, 실제로 기회를 주어 새로 배운 기술을 실제의 친구관계에서 연습할 수 있게 한다. 장기간에 걸쳐 친구관계의 변화과정을 살피고 상담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청년기의 친구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는 시작에 불과해 이 글에서는 주로 외국의 연구에 근거하여 살펴 보았다. 친구관계는 자발적인 속성을 가지고 또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특히

치열한 경쟁과 학업에만 치중하는 현재 우리의 청소년 생활에서 친구관계는 어떤 양상을 띠는가를 앞으로 많은 실증적 조사 연구가 이루어져야 파악될 것으로 생각된다. 친구에 대한 기대, 친구관계에서 이루어진 내용, 친구관계의 구조, 친구관계의 형성 과정에 대한 주제들이 기본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친구관계의 형성, 유지, 단절, 회복등의 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밝혀진다면 우리 청소년들의 친구관계의 본질이 파악될 것이고, 실제적인 차원에서 청소년의 친구관계에 대한 지도 및 상담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영본(1982). 고등학교 학생의 교우관계 관한 연구. 동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범석(1990). 인기아와 고립아의 교우관계에 있어서의 선택과 배척의 귀인분석.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수(1983). 여고생의 교우관계 유형별 심리적 특성 및 학업성적의 조사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숙(1983). 학급내 인기아와 피배척아의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도에 관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란(1985). 사회적 측정 지위, 자아개념, 귀속요인의 상호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화정(1989). 친구지각에 관한 일 연구: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진(1984)우정관계의 본질과 발달단계에 따른 변화. 사회심리학연구, 2(1), 94-113.
- 이영숙(1989). 인기 학생과 피배척 학생의 행동 특성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춘미(1991). 청소년의 대인문제해결력 및 학업 성취도와 또래집단수용도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덕웅(1985). 우정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종단적 연구, 사회심리학연구, 2(2), 169-191.
- \_\_\_\_\_ (1986). 우정관계의 진전에 따른 행동적 사전의 변화. 사회심리학연구, 3(1), 37-72.
- 한정란(1986). 중학생의 학급내 교우관계에 관한 귀인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dams, R. G.(1989). Conceptual and

- Methodological Issues in Studying Friendships of Older Adults. In R. G. Adams & R. Blieszner(Eds.), *Older Adult Friendship*.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 Allison, M., & Sabatelli, R. M.(1988). Differentiation and Individuation as Mediators of Identity and Intimacy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3, 1-16.
- Altman, I. & Taylor, D.A.(1973). *Social Penetration*. N.Y.: Holt, Rinehart & Winston.
- Berndt, T. J.(1982). The Features and Effects of Friendships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3, 1447-1460.
- Bigelow, B. J.(1977). Childrens' Friendship Expectations: A Cognitive Developmental Study. *Child Development*, 1977, 48, 246-253.
- Bigelow, B. J. & La Gaipa, J. J.(1975). Children's Written Descriptions of Friendship: A Multidimension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1, 857-858.
- Blumer, H.(1969). *Symbolic Interactionism: Perspective and Method*. N. J.: Prentice-Hall.
- Brown, B., Eicher, S., & Petrie, S.(1986). The Importance of Peer Group("crowd") Affiliation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9, 73-96.
- Buhrmester, D. & Furman, W.(1987). The Deveopment of Companionship and Intimacy. *Child Development*, 58, 1101-1113.
- Buhrmester, D., & Furman, W.(1986). The Changing Functions of Friends in Childhood: A Neo-Sullivanian Perspective. In V. J. Derlega & B. A. Winnstead(Eds.), *Friendship and Social Interaction*. N.Y.: Springer verlag.
- Claes, M. E.(1992). Friendship and Personal Adjustment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15, 39-55.
- Coleman, J. C.(1974).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Damon, W.(1983).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Y.: W.W. Norton & Company, Inc.
- Douvan, E., & Adelson, J.(1966). *The Adolescent Experience*, N.Y.: Wiley.
- Dunphy, D.C.(1963). The Social Structure of Urban Adolescent Peer Groups. *Sociometry*, 26, 230-246.
- Fine G.A.(1984). Friends, Impression Management, and Preadolescent Behavior. In S.R. Asher and I.M. Gottman(Eds.),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Friendships*. N.Y.: Press Syndicate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 Ginsberg, D., Gottman, J. & Parker, J.(1986). The Importance of Friendship. In J.M. Gottman & J.G. Parker(Eds.), *Conversations of Friends*. Cambridge. Combridge University Press.
- Gottman, J., Gonso, J., & Rasmussen. B.(1975). Social Interaction, SocialCompetence and

- Friendship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46, 709-718.
- Hardwick, P. J., Pounds, A. B. & Brown, M. (1985). Preventative Adolescent Psychiatry? Practical Problems in Running Social Skills Group for the Younger Adolescent. *Journal of Adolescence*, 8, 357-367.
- Hartup, W.(1983). Peer Relations. In E. M. Hea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Vol. 4, 167-230. New York: Wiley.
- Levinger, G., & Snoek, D. J.(1971). *Attraction in Relationships: A New look at Interpersonal Attraction*. N. J.: General Learning Press.
- LLOYD, M. A.(1985). *Adolescence*. N.Y.: Harper & Row Publishers.
- Lott, A. J. & Lott, B. E.(1974). The Role of Reward in the Formulation of Positive Interpersonal Attitude. In T. J. Huston(Ed.), *Foundations of Interpersonal Attraction*, 171-189. N.Y.: Academic.
- Maas, H.S.(1968). Preadolescent Peer Relations and Adult Intimacy. *Psychiatry* 31; 161-172.
- Perlman, D. & Fehr. B.(1986). Theories of Friendship: The Analysis of Interpersonal Attraction. In V.J. Derlega & B.A. Winstead(Eds.), *Friendship and Social Interaction*. N.Y.: Springer-verlag.
- Roberto, K.A.(1989) Exchange and Equity in Friendships. Adams, R. G. & R. Blieszner(Eds.), *Older Adult Friendship*. Cal.: Sage Publications.
- Sullivan, H. S.(1957).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Y.: Random House.
- Tesch, S.A.(1983). Review of Friendship Development Across The Live Span. *Human Development*, 26, 266-276.
- Tesch, S.A.(1989). Early-Life Development and Adult Friendship. In R. G. Adams & R. Blieszner(Eds.), *Older Adult Friendship*. Cal.: Sage Publications Inc.
- Youniss, J.(1980). *Parents and Peers in Social Developmen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